



20250907 주일말씀

제목: 일어나 걸으라

본문: 사도행전 3:1-10

설교: 김성우 목사

-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치리받은 김성우 목사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비극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었고 고향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비극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 그 한사람이 있고 무기력이 학습되어 영혼까지 찌들어버리고 바싹말라버린 씨앗 같은 그 한사람이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려면

1.구걸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오십일

그저 성령받아 방언하고 기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 의해 기적이 베풀어지는 순간.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9시 기도시간이라는 말은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3천명이 몰려드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해진 기도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팅크트립뿐 아니라 우리는 목장 예배 기도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올라갈때 또 한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3천명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그 한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한사람이 나옵니다.직업은 구걸입니다. 구걸도 자발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와 돈을 벌기위해 자기가 원치 않는 장소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원치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 원치 않은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거둔 돈도 다르누사람이 다시 거두어 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고 떠난 우리의 모습이죠 던져진채로 실존으로 구걸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등에 구걸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사람이 앉은 곳은 미문앞입니다.

미문 성전의 아름다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나의 모습입니다. 던져진 존재로 한주도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그 얻은 것은 빠져나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그림이 아버지가 시장들어가는 문 앞 길가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다 떠난 그 인생은 홀로 그 길에서 술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 등으로 벌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돕지 않고 정죄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정죄하고 교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적용한것이 아버지 거주하시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해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는 그 아버지.. 무시가 되고..

탁월한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구걸 전화가 옵니다. 돈보내라.... 2만원씩.... 교회나가면 5만원 10년정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도 한번에 다 안주십니다. ㅋ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관심은 일절 없었고 계속 돈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자기자신을 알기에 구걸합니다. 내 모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걸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던져졌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걸을 하는거죠 구걸이 나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구걸의 원어는 엘레로쉬 엘레모쉬네 단어가 쓰인 곳마다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안에 없기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고 내안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내게 줄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자비 긍휼 동정 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라 누군가가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구걸이라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로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께 구하면 구걸이지만 내 아버지께 약속으로 구하면 기도가 됩니다. 약속으로 말씀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모습이 또 넘어지고 중독에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의지해서 구할때 주님 내가 앓은뱅이입니다. 내가 일어설수 없습니다. 나에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걸이 아니라 기도죠.

하나님은 구걸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하기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나혼자 살수 있고 스스로 이땅을 살아낼수 있고 할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하고 넘어져도 저희 아버지는 또 전화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해야 합니다. 거절해도 또 전화하신 아버지가 저보다 믿음이 좋으셨던거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뻔뻔하게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으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면 구할 때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2. 더불어 주목해야 합니다.

3-5절은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4번의 보다가 다 다른 원어로 쓰였습니다. 4절의 주목하다 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왜 중요할까요? 더불어 주목했어요 구걸하는 거지를 성전안으로 들어가본적이 한사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한사람을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아테니조

이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모세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쓰인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탁월한 사람도 아닌 내 옆에 있는 구걸하는 한사람 불필요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 한사람을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속의 거대한 죄악을 직면하고 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아테니조 할수 있었던 것이죠.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걸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 아들처럼 아테니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옆의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테니조가 아니라 가족을 원수처럼 보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너무 힘들죠..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을 두신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3.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 동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과 금을 줄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 미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왜 나사렛을 말했을까? 보잘것 없는 마을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나사렛 이름으로 베드로는 한사람을 일으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모습, 실패, 눈물, 숨기고 싶은 나의 이 연약함과 죄까지도 가장 추악한 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사람이 일어날수 있는 것이죠.

멋진 성전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내밀어 끌어올립니다.

베드로도 빠져죽을 뻔한 구걸하던 자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죽게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죽게되었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미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도저히 걸을수 없는 그 물위를 잡고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내가 실패한 그곳에 주님도 내 손을 잡아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거지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일어날수 없었던 증오하던 떠난 자신의 손을 예수님은 한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실패와 아픔을 안다 하십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 하며 저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시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구걸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사렛 공동체 입니다. 나사렛 이름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공동체 입니다. 구원을 위해 적용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구걸만 했기에 앞으로 구원을 위해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훈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옆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